

일 도시 고등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문제

강혜영* · 신경은** · 장현지*** · 나영희**** · 조은희*****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순천청암고등학교
*** 전주한일고등학교
**** 강진성요셉여자고등학교
***** 광주동명중학교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Hae-Young Kang*, Kyung-Eun Shin**, Hyun-Ji Jang***, Young-Hwa Na****, Eun-Hee Cho*****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RINS
** Suncheon Chongam High School
*** Jeonju Hanil High School
**** Kangjin St. Joseph Girl High School
***** Kwangju Dongmyoung middle School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inking motives and the drinking-related problem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t a city in Jeonbuk province.

Methods : There were 657 students from two academic and two vocational high schools at J city in Jeonbuk province. The sample was collected using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30th to July 16th 2003. The study instrument used to examine drinking motive was a 20-item summated scale (Cronbach's $\alpha = .95$) and for drinking-related problems was an 18 item summated scale (Cronbach's $\alpha = .91$).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PC+ by percentage, χ^2 -test, t-test and correlations.

Results : 1. Drinking experience: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74.3% of them had drinking episodes. Female students started drinking later ($\chi^2 = 12.857, p = .002$) and had more drinking friends ($\chi^2 = 7.785, p = .020$) than males. Vocational school students drank more frequently ($\chi^2 = 32.138, p = .001$), had more heavy drinking episodes ($\chi^2 = 40.370, p = .001$).

2. Drinking motives & Drinking-related problems: The mean score of drinking motives was 31.2 ± 11.12 out of 80 and that of drinking-related problems was 21.8 ± 5.85 out of 72 points. Neither score were stronge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On the other hand, both drinking motives ($t = -4.077, p = .001$)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t = -3.423, p = .001$) were stronger in vocational school students than in academic school students. The correlation between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were weak (from $r = .286$ to $r = .520$) but the correlation within the subcategories of drinking motives was high such as between enhancement and coping ($r = .822$) and enhancement and social motives ($r = .822$).

Conclusion : The majorit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art to drink during their junior high school days.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were not serious but the drinking motives and the drinking-related problems are stronger among vocational school students. As a result, school-based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should focus on solving drinking motives than on drinking-related problems.

Key words : Drinking Motives, Drinking related Problems, high school students

본 연구는 2004년도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에 의한 연구임.
교신저자 : 신경은, 전남 순천시 덕월동 318번지 순천청암고등학교, gomayaa@hanmail.net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알코올 관리가 비교적 소홀한 편이어서 세계에서 알코올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다(김광기, 1996).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간 술 소비량은 '97년 284만 kl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56만kl로 급감했으나 '99년 277만kl, '00년 281만kl로, '01년에는 307kl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연합뉴스, 2002. 5. 21). 전국 표본조사인 청소년 보호위원회(2002)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음주 경험여부는 '99년 60.2%에서 '02년 70.5%로 증가했으며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술을 마셔본 경험이 6.1%에서 12.3%로 증가하여 음주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이에 따른 음주율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기가 알코올 사용을 시작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로(Chassin, L. & Delucia, C., 1996) 청소년기의 신체·사회·심리적인 문제점들은 청소년들의 문제음주나 폭음에 연관성이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중독으로 빠져들게 한다(Rassool, G. H. & Winnington, J., 2003).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는 음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독성화가 쉽게 일어나고 담배, 본드, 기타 다른 약물의 사용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후 음주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위험한 성행동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상해, 살인, 자살을 포함하는 3가지 주요 사망원인을 포함하는 청소년 음주로 인해 갖가지 심각한 건강 위험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James et al., 1996; Kandel, et al., 1986; Chassin, L. & Delucia, C., 1996).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증가할수록 음주관련문제가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신행우, 1999;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2001; 한소영, 2002) 여러 영역에 광범위한 손상이 우려될 뿐 아니라 흡연, 성경험, 학교에서의 처벌 및 경찰서 연행과 같은 일탈적 행동도 높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음주집단이 비 음주집단에 비해 흡연경험은 11배, 성경험은 8.2배, 학교에서 처벌은 3.5배, 경찰서 연행은 7.5배가 높았다(한성현과 한동우, 2001).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주를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음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84.6%) 중 39.4%가 문제성 음주 청소년으로 나타났다(김용석, 1998).

청소년 음주는 고 위험집단에게서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서도 별 경계심 없이 시도되고 있고, 또 다른 약물로의 통로약물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윤혜미 등, 1999). 그러므로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Cox & Klinger(임경화, 1999에 인용됨)는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보다 먼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음주동기를 거쳐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됨으로 음주동기는 음주에 이르는 최종의 공통 경로이며 음주행동과 가장 근접해 있는 선행변수로 음주행동을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주로 음주실태조사(곽정옥과 김영복, 1997; 조성기 등, 2001)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김영란, 1999; 임경화, 1999; 안정선 등, 2003)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주행동을 직접 설명해줄 음주 동기는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김석도, 2000; 오윤경, 2000) 이루어져 음주경험 연령의 하향화 추세와 고등학생의 문제성 음주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고등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음주관련배경을 알아보고 음주동기와 음주문제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배경, 음주동기와 음주문제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계열별, 학년별로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를 비교한다.

2. 용어정의

음주동기: 음주행동과 가장 근접해 있는 선행변인으로서 음주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원천(내적 혹은 외적)과 방향성(정적 강화 혹은 부정적 강화)에 의해 네 개의 음주동기로 구분한다. 첫째, 대처 동기(coping motive)는 내부에서 생성된 부정적 강화 동기이며 둘째, 고양 동기(enhancement

motive)는 내부에서 생성된 긍정적 강화 동기이고, 셋째, 동조 동기 (conformity motive)는 외부에서 생성된 부정적 강화 동기이며 넷째, 사교 동기 (social motive)는 외부에서 생성된 긍정적 강화 동기를 말하며 (Cox & Klinger; 임경화, 1999; 신행우 등, 1999a에 인용됨), 본 연구에서는 신행우와 한성열 (1999)이 개발한 음주동기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음주문제: 개인이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음주로 인해 생기는 장·단기적인 문제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능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로 오윤경 (2000)이 재구성한 음주문제측정도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값을 말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먼저 표집대상을 전주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으로 국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며, 또한 질문지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조사 대상 범위 등의 일반적인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시 28개 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반계와 실업계 각각 2개교 12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학교는 J시 두 개 구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은 두 학교를, 실업계는 각 구별로 한 학교씩 임의 추출하였고, 4개 학교에서 각 학년의 첫째 반과 마지막 반을 선정, 총 681명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도구

본 연구의 내용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계열, 학년, 음주경험과 가정 및 학교 생활의 만족도와, 음주행위로는 음주시작시기, 최근 6개월 동안 음주상황, 함께 음주하는 동료, 음주빈도, 1회 음주량, 폭음 (조성기 등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한자리에서 5잔 이상 마신 날이 한달에 1일 이상

인 것으로 정의함), 음주장소를 조사하였다.

음주 동기는 신행우와 한성열 (1999)이 개발하여 임경화 (1999)가 재구성한 도구를 근거로 본 연구팀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대처동기 ($\alpha = .91$), 고양동기 ($\alpha = .82$), 사교 동기 ($\alpha = .91$), 동조동기 ($\alpha = .80$)로 각각 5문항씩,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 (Cronbach's $\alpha = .95$)으로 된 도구로 점수가 많을수록 동기가 강하다고 해석하였다.

음주문제는 신행우 (1999a)가 개발하여 오윤경 (2000)이 재구성한 음주문제측정도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일부 수정·보완한 4점 척도의 18문항 (Cronbach's $\alpha = .91$)으로 사회·기능적 문제 ($\alpha = .81$), 행동상의 문제 ($\alpha = .83$) 그리고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 ($\alpha = .77$)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도구로서 점수가 많을수록 음주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석하였다.

3.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자료 수집 기간은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16일이며, 본 연구팀이 직접 총 681명에게 배부, 회수율 98.4%인 670부 중 불완전한 13부를 제외한 657부를 기초로 하여 이중 음주 경험이 있었던 488명의 자료를 통해 동기와 음주관련 문제를 최종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version 10.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t-test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52.8%, 학교계열별로는 일반계가 52.4%로 각각 절반 이상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31.8%, 2학년 32.6%, 3학년 35.6%이었다. 대상자의 76.9%가 가정생활에, 그리고 64.3%가 학교생활에 만족하였고 전체 657명의 대상 학생 중 74.3%인 488명이 음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음주 경험학생의 음주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음주시작 시기는 중학교 때가 68.5%, 지난 6개월간의 음주횟수로는 한 두 번이 63.5%로 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때 시작한 학생도 10.3%나 되었다. 평균 음주량은 절반 수준인

50.6%가 한 번에 1-5잔정도 마신다고 하였고 64.1%는 한자리에서 5잔 이상 마신 날이 한 달에 1일 이상인 폭음경험이 있으며 65.5%가 우정을 위해 마시며 70.6%가 친구와 함께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관련 특성을 성별로 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s &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88

		n	%*
Starting period	elementary school days	50	10.3
	junior high school days	332	68.5
	high school days	103	21.2
Drinking frequency within last 6 months	none	109	22.6
	once-twice/mon	306	63.5
	≥3 times/mon	67	13.9
Drinking amount	none	55	11.3
	1-5 cups	246	50.6
	≥6 cups	185	38.1
Heavy drinking episode	none	174	35.9
	have	311	64.1
Drinking episode (situation)	for friendship	310	65.5
	in group training or outdoor activity	90	19.0
	at family event or festival	62	13.0
	not any specific	12	2.5
Drinking company	friends	367	76.0
	family, senior & or junior	105	21.7
	alone & or unknown person	11	2.3

* excepted no response

<Table 2>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n=488

		Male	Female	χ^2	p
		n(%)	n(%)		
Starting period	elementary school days	71(16.3)	14(5.3)	12.857	.002
	junior high school days	102(62.0)	195(73.9)		
	high school days	48(21.7)	55(20.8)		
Drinking company	friends	158(71.8)	209(79.5)	7.785	.020
	family, senior & or junior	53(24.1)	52(19.8)		
	alone & or unknown person	9(4.1)	2(0.8)		

음주시작 시기가 초등학교시절인 경우가 남학생은 16.3%, 여학생은 5.3%, 중학교 때는 각각 62.0%, 73.9%로 남학생이 보다 일찍 음주를 시작하였다 ($\chi^2 = 12.857, p = .002$). 함께 마시는 음주동료로는 남학생에서 친구 71.8%, 가족이나 선후배가 24.1%, 혼자 또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4.1%순인 반면, 여학생은 각각 79.5%, 19.8%, 0.8%순으로 나타나 두 군 모두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마시지만 남학생의 경우, 그 외의 사람들과는 여학생 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7.785, p = .020$).

음주관련 특성을 학교계열별로 보면 <Table 3>과 같다.

학교계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음주빈도, 음주상황 및 폭음횟수이었는데, 음주 빈도에서 일반계 학생은 전혀 안 마시는 경우가 31.4%이고 한달에 3-4회 이상 마시는 경우가 6.6% 인데 반해 실업계 학생은

각각 14.6%와 20.6%로 나타났다 ($\chi^2 = 32.138, p = .001$). 한 자리에서 5잔 이상 마신 날이 한달에 1회 이상인 폭음의 경우 일반계가 50.4%, 실업계가 76.5%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한달에 1-3회 폭음을 한 횟수는 실업계가 일반계보다 2배나 더 높았다 ($\chi^2 = 40.370, p = .001$). 또 6개월 이내의 주요 음주상황에서 일반계 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릴 때 54.8%, 수련회나 야외활동 시 23.8%로 나타난 반면, 실업계는 주로 친구들과 어울릴 때 74.7%로 나타났다 ($\chi^2 = 21.818, p = .001$) 실업계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평상시에 먹는 날이 많고 일반계 학생들은 야외활동이나 가족모임 때와 같이 특별한 날에 가끔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음주동기와 음주문제

연구대상자의 음주동기와 음주문제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chool System

n=488

		Academic	Vocational	χ^2	p
		n(%)*	n(%)*		
Frequency within last 6 months	none	72(31.4)	37(14.6)	32.138	.001
	once-twice	142(62.0)	164(64.8)		
	≥3 times	15(6.6)	52(20.6)		
Heavy drinking episode (frequency)	none	114(49.6)	60(23.5)	40.370	.001
	1-3times/month	46(20.0)	103(40.4)		
	≥1time/week	70(30.4)	92(36.1)		
Drinking episode (situation)	for friendship	121(54.8)	189(74.7)	21.818	.001
	in group training or outdoor activity	52(23.5)	38(15.0)		
	at family event or festival	41(18.6)	21(8.3)		
	not any specific	7(3.2)	5(2.0)		

* no response excepted

<Table 4>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n=488

		M±SD	range (Z)
		Drinking motives	total
	coping	8.2±3.64	5-20
	enhancement	7.4±2.77	5-20
	social	8.7±3.54	5-20
	conformity	7.0±2.39	5-20
Drinking -related problems	total	21.8±5.85	18-72
	socio-functional	6.8± 1.81	6-24 (6.18)
	behavioral	8.8± 2.70	7-28 (4.51)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familial	6.2± 2.05	5-20 (4.29)

연구대상자의 음주 동기는 80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사고 동기 8.7±3.54, 동조동기 8.2±3.6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문제는 72점 만점에 평균 21.8점으로 가끔 경험하여 심각하게 우려해야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상의 문제가 8.8±2.70, 사회·기능상의 문제가 6.8±1.81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음주동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가 없었는데 네 개 하위영역 중 남학생의 교양 동기는 7.6±3.03인 반면 여학생은 7.1±2.52 ($t = 2.203, p = .028$), 동조 동기는 남학생이 7.3±2.57, 여학생이 6.7±2.21 ($t = 2.587, p = .010$)로 두 영역 모두에서 남학생의 동기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관련 문제

역시 전체적인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인 사회 기능적 문제에서 남학생이 6.9±2.05, 여학생이 6.6±1.5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2.122, p = .034$).

연구대상자의 학교계열별 음주 동기 및 음주 문제는 <Table 6>과 같다.

음주 동기는 일반계가 29.1±10.02, 실업계가 33.2±11.61로 성별로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4.077, p = .001$). 네 개 하위영역에서도 실업계 학생들의 음주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는 동조 동기로서 일반계 7.5±3.29, 실업계 8.7±3.84 ($t = -3.877, p = .001$). 음주관련 문제 역시 학교계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일반계가 20.8±4.66, 실업계가 22.6±6.65로 실업계의

<Table 5>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ccording to Gender

				n=488	
		Male	Female	t	p
		M±SD	M±SD		
Drinking motives	total	32.2±11.71	30.3±10.55	1.813	.071
	coping	8.3±3.87	8.0±3.44	1.010	.313
	enhancement	7.6±3.03	7.1±2.52	2.203	.028
	social	8.9±3.62	8.5±3.47	1.385	.167
	conformity	7.3±2.57	6.7±2.21	2.587	.010
Drinking -related problems	total	22.1±6.48	21.4±5.26	1.343	.180
	socio-functional	6.9±2.05	6.6±1.56	2.122	.034
	behavioral	8.8±2.84	8.8±2.59	0.033	.974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familial	6.3±2.26	6.0±1.84	1.675	.095

<Table 6>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ccording to School system

				n=488	
		Academic	Vocational	t	p
		M±SD	M±SD		
Drinking motives	total	29.1±10.02	33.2±11.61	-4.077	.001
	coping	7.5±3.29	8.7±3.84	-3.877	.001
	enhancement	6.9±2.48	7.8±2.94	-3.663	.001
	social	8.1±3.49	9.2±3.51	-3.699	.001
	conformity	6.6±2.09	7.4±2.59	-3.693	.001
Drinking -related problems	total	20.8±4.66	22.6±6.65	-3.423	.001
	socio-functional	6.5±1.40	6.9±2.09	-2.419	.016
	behavioral	8.4±2.28	9.1±2.99	-3.106	.002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familial	5.8±1.71	6.4±2.28	-3.450	.001

문제가 많았으며 ($t = -3.423, p = .001$), 세 개의 하위영역에서 두 군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제는 대인 및 가족관계 문제로 일반계 5.8 ± 1.71 , 실업계 6.4 ± 2.28 이었다 ($t = -3.450, p = .001$).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음주동기와 음주관련 문제는 <Table 7>과 같다.

음주 동기가 전체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하위영역인 사교 동기에서 1학년 8.0 ± 3.06 , 2학년 8.8 ± 3.81 , 3학년 9.1 ± 3.58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7.810, p = .009$).

4. 연구대상자의 음주 특성, 음주 동기 및 음주관련 문제 간의 상관성

음주관련 특성과 동기 및 음주관련 문제간의 상관관계는 <Table 8>과 같다.

음주 특성에서는 음주량은 음주 빈도와 ($r = .622$) 폭음 횟수 ($r = .656$)에 중간정도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음주 동기나 음주관련 문제들과는 대개 $r = .520$ 에서 $r = .286$ 범위의 비교적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Table 7>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ccording to Grade

		1 st	2 nd	3 rd	F	p
		M±SD	M±SD	M±SD		
Drinking	total	2.99±9.54	31.8±12.41	31.7±10.99	1.757	.358
motives	coping	8.0±3.45	8.2±3.94	8.1±3.51	0.177	.838
	enhancement	7.1±2.32	7.5±3.19	7.4±2.68	0.500	.480
	social	8.0±3.06	8.8±3.81	9.1±3.58	7.810	.005
	conformity	6.8±2.21	7.1±2.55	7.0±2.39	0.250	.617
Drinking	total	21.1±3.94	21.8±6.48	22.1±6.41	1.964	.162
-related problems	socio-functional	6.4±0.99	6.8±2.06	6.9±2.01	6.791	.009
	behavioral	8.8±2.48	8.7±2.78	8.8±2.81	0.005	.946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familial	5.8±1.27	6.3±2.36	6.2±2.19	2.320	.128

<Table 8> Correlation between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Drinking Motives & Drinking-related Problems

	D-related Characteristics				D. Motives			D-related Problems		
	Fr	Am	Hv	Cp	Eh	Sc	Cf	S-F	Bh	I-F
Fr	1.0									
Am	.622	1.0								
Hv	.495	.656	1.0							
Cp	.432	.433	.445	1.0						
Eh	.440	.427	.430	.822	1.0					
Sc	.468	.460	.520	.750	.822	1.0				
Cf	.307	.289	.331	.578	.678	.652	1.0			
S-F	.318	.298	.286	.504	.550	.438	.480	1.0		
Bh	.366	.370	.365	.539	.535	.477	.494	.668	1.0	
I-F	.413	.379	.388	.578	.603	.553	.496	.714	.629	1.0

note: Fr-frequency, Am-amount, Hv-heavy drinking episode, Cp-coping motive, Eh-enhancement motive, Sc-social motive, Cf-conformity motive, S-F-sociofunctional problems, Bh-behavioral problems, I-F-interpersonal/familial problems

음주동기에서는 우선 대처동기와 고양 동기간, 고양 동기와 사교 동기간에서 각각 $r = .822$ 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그밖에도 대처동기와 사교 동기 역시 $r = .750$, 고양동기와 동조 동기가 $r = .678$ 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음주동기와 음주관련 문제들과는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와 고양 동기간의 상관성이 $r = .603$ 으로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며; 음주문제들 간에는 사회·기능적 문제와 대인 및 가족관계 문제간이 $r = .714$, 행동문제간이 $r = .668$, 대인 및 가족관계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가 $r = .629$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1. 음주 관련특성

청소년의 음주행태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쉽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기보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음주 경험율은 연구대상자의 74.3%인 488명으로 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9)가 일 도시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77.4%였던 것과 조성기 등 (2001)에서 75.7%,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에서 70.5%인 것, 그리고 1996년에서 1997년에 걸쳐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uzuki, K, Minowa, M. & Osaki, Y., 2000) 고교생이 70%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음주경험은 일반계 학생의 47.3%에 비해 실업계가 52.7%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를 많이 하였으며 거의 2/3에 달하는 68.5%의 음주경험학생들이 중학교 때 음주를 시작했다. 음주빈도는 1달에 한 두 번이 대부분이며 한번에 5잔 이내를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조성기 등 (2001)과,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및 일본의 (Suzuki, K, Minowa, M. & Osaki, Y., 2000)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안정선 등 (200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주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친구로, 친구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일과 중 학교생활이 대부분인 학생들은 주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학생 신분으로써 음주행위는 사회통념상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친구끼리 어울릴 때 가장 많이 마

신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 시작시기가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보다 빠르고 음주 동료도 남녀 모두 친구가 가장 많긴 했으나 남학생 군에서 가족이나 선후배 또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마시는 학생이 보다 많았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음주에 관한 한 성인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보다 관대한 분위임을 일부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 외에 일본에서는 거의 20% 이상의 고교생들이 혼자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여 (Suzuki, K, Minowa, M. & Osaki, Y., 2000) 우리나라의 2.3%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술을 부모로부터 권유받는다든 응답이 고교생의 1/3이 넘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예상했던 대로 일반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들에서 음주빈도는 물론 폭음횟수 등이 보다 유의하게 많아 조성기 등 (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학교보건교육 상 실업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특히 일반계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입학에 대비한 학업으로 인해 활동 반경이 점점 더 학교에 한정되어져 가는 반면, 실업계 학생들은 대부분 현장 실습 또는 졸업 전 조기취업 등으로 학업을 마치고도 전에 학교 밖의 음주 문화에 보다 빨리 접할 기회가 많아짐을 감안한다면 1학년 때부터 음주예방을 비롯한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교육과 개별상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음주동기 및 음주관련 문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음주 동기가 '특별한 일로 인해 친구와 함께 축하하고 싶을 때',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등과 같은 사교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행우 (1999a)의 연구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오윤경 (2000) 연구결과들과 일치했으며, 측정도구가 달라 동기 정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동현 등 (2001)의 연구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광정옥 등 (1997)의 연구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 (69.9%), '사교 상' (68.1%) 이유가 많은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

는 (Suzuki, K, Minowa, M. & Osaki, Y., 2000) 부모로부터 술을 권유받은 고등학생이 1/3이상이며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도 20% 이상인 결과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imons, J., Correia, C. J., Carey, K. B. & Borsari., B. E.,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개 동기 외에 확장동기 (expansion motive)가 추가되어 음주 및 마리화나 동기 모두 음주 및 음주관련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인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음주 동기나 관련문제가 나라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음주 동기 수준은 본 연구에서 80점 만점에 31점으로 고등학생들의 음주 동기는 그다지 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음주관련 문제 역시 72점 만점에 21점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를 하위영역별로 세분해 보았을 때, 내적으로 부정적 강화 동기인 대처동기와 음주로 인한 행동상의 문제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앞으로 학교보건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즉 사교 동기가 높은 것은 고등학생의 발달시기 상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지만 내적으로 부정적 대처동기로 인한 음주 유발과 그에 따른 행동상의 음주관련 문제는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현상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음주 동기나 음주관련 문제에 전체적으로는 성별 차이가 없는데도 음주를 하는데 있어서 고양동기와 동조동기 및 그로 인한 사회 기능적 문제 영역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높은 것 역시 앞으로 학교보건교육이나 개별 상담에서 이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음주동기와 음주관련 문제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학교계열이었는데 이는 앞서 음주 빈도나 폭음횟수 및 음주 상황에서 두 군간 차이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음주를 함에 있어 내적 부정적 강화요인인 대처 동기가 실업계 학생들에서 보다 강하고 이들에게서 행동상의 문제와 대인 및 가족간의 대인관계 상의 문제가 타 영역에서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실업계학교라는 특수 학습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겠으나 이들 실업계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학교와 가정으로부터의 기대감이 낮아 스스로 내적 자존감이 낮아져 부정적 강화요인이 두드러진 때문이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음주동기의 모든 영역에서 음주관련 문제들에

서 보다 두 학교 계열별로 차이가 두드러진 점은 이를 실업계 학생들에게 음주결과로 빚어지는 문제들 보다는 그들이 음주하게 되는 동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오윤경 (2000)은 일반대학생과 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량이나 빈도, 음주 동기나 관련 문제가 두 군 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고등학생 때보다 대학생 때는 통제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음주 동기나 관련 문제도 학년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 동기에 서만 차이를 보여 이로 인한 음주가 많아짐을 보였는데, 이는 성인의 음주문화를 반영하고 술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 모임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성장발달 상 이 시기가 사교적인 활동욕구가 보다 강한 시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술로서 어떤 것을 대처하거나 고양시키고 무엇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교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게 되는 성장발달상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음주동기와 마리화나 사용동기가 (Simons, J., Correia, C. J., Carey, K. B. & Borsari., B. E., 1998)일본 고등학생들이 1/3이상에서 부모로부터 권유받는 점과, 주류 판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및 맥주 집 등에서 쉽게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역시 35% 이상이 청소년 음주단속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을 보인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Suzuki, K, Minowa, M. & Osaki, Y., 2000).

3. 음주특성과 동기 및 음주관련문제들 간의 상관성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음주량은 그 빈도나 음주량 또는 폭음횟수와 서로 상관성이 $r = .60$ 이상의 상관성이 있는 반면, 음주 동기나 음주관련 문제들과는 상대적으로 이들 간의 상관성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술을 마시는는 하나 술을 마셔야 한다는 내외적 동기가 그다지 강한 것을 아님을 시사한다 하겠으며 음주동기가 음주관련 문제로 곧바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즉 음주를 시작하는 것이 주로 즉흥적이고 호기심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음주 자체에 대한 질책이나

반대보다는 그들이 음주동기를 먼저 살피는 교육풍토가 필요하며 음주관련 문제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들이 스스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상담과 지지가 동반되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음주동기가 주로 대처, 고양 사고 동기간에 각각 $r = .822$ 로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거니와 고등학생들의 음주관련 교육에서는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사후해결방안 모색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들의 음주 동기에 대한 이해와 지지 및 상담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양동기가 음주관련 가족 및 대인관계상의 문제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오윤경(2000)의 연구에서 대학생에서도 고양 동기가 음주횟수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한 결과나 Cooper (Sherry & Heater, 2000에 인용됨)가 고양 동기가 폭음, 음주 자제의 어려움의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겠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경화 (1999)의 연구에서는 대처동기가 음주문제의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신행우(1999b)의 연구에서도 역시 대처동기와 행동상의 문제에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 김용석 (2000)에서는 대처동기가 클수록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높고 음주문제 역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oper (Sherry H. S., Laura C., 1999에 인용됨)는 대처동기가 알코올의 소비수준이 통제된 후에도 증가된 음주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인 반면, 고양 동기는 알코올소비 증가를 통한 단지 간접적인 음주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Sherry & Laura (1999)는 청소년 음주의 대처동기와 고양동기가 음주문제와 폭음에 관련성이 있다고 본 연구결과와 같은 문제점을 시사하였다. 반면, Bradizza 등 (1999)은 중후기 청소년의 음주동기가 대처동기보다는 사고 동기가 더 강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그들 문화에서는 인종 간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음주 동기와 음주관련 문제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보면 본 연구대상 고등학생의 음주빈도는 네 명 중 세 명 정도였고 주로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였으나 초등학교 때 시작한 경우도 10%를 웃돌아 음주 시작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 동기나 음주로 인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성별, 학년별로 보다는 계열별로 보다 큰 차이를 보여 실업계에서 음주빈도나 관련 문제가 보다 많고 음주동기도 보다 강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후속연구와 함께 술의 구입 경로와 부모들의 자녀 음주에 대한 태도 및 음주예방 관련 법,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고등학생들의 음주 동기와 음주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J시 일반계와 실업계 각각 2개교에서 각 학년별 두개 반씩 총 657명을 대상으로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음주 동기는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된 20문항의 4점 척도로, 음주관련 문제는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된 18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t-test 및 상관성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74.3%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었고 음주시작 시기는 68.5%가 중학교 때였으며 63.5%가 한달에 1-2회 정도 음주를 했고, 50.6%는 1회 평균 1-5잔 정도를 마셨다. 대상자의 64.1%가 폭음한 경험을 가졌고, 음주동료로는 대상자의 76%가 친구를 꼽았으며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65.5%가 술을 마셨다.

2) 연구대상자의 음주관련배경에서는 과반수이상에서 중학생 때 음주를 시작하였으나 음주시작 시기는 남학생에서 보다 빨랐고 ($\chi^2 = 12.857, p = .002$) 친구이외의 음주동료도 다양했으며 ($\chi^2 = 7.785, p = .020$)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음주경험이 많고 ($\chi^2 = 32.138, p = .001$), 음주빈도도 잦았으며 ($\chi^2 = 32.138, p = .001$), 주로 우정을 위해 많이 마셨으며 ($\chi^2 = 21.818, p = .001$) 폭음횟수도 많았다 ($\chi^2 = 40.370, p = .001$).

3) 연구대상자의 음주 동기는 80점 만점에 31.2 ± 11.12 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하위영역에서는 사고 동기 8.3 ± 3.54 , 대처동기 8.2 ± 3.84 순이었다. 음주관련 문제 역시 72점 만점에 21.8 ± 5.85 로 낮은 편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행동상의 문제가 $8.8 \pm$

2.70, 사회기능상의 문제가 6.8 ± 1.81 순이었다.

4) 음주 동기나 음주관련 문제에서 성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하위영역인 고양 동기가 남학생에서 7.6 ± 3.03 , 여학생은 7.1 ± 2.52 ($t = 2.203$, $p = .028$), 동조 동기는 남학생 7.3 ± 2.57 , 여학생 6.7 ± 2.21 ($t = 2.587$, $p = .010$)보다 높았고 사회 기능적 문제에서도 남학생이 6.9 ± 2.05 , 여학생이 6.6 ± 1.5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2.122$, $p = .034$).

5) 학교계열별 음주 동기는 일반계가 29.1 ± 10.02 , 실업계가 33.2 ± 11.6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4.077$, $p = .001$).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중 가장 큰 차이는 동조 동기로서 일반계 7.5 ± 3.29 , 실업계 8.7 ± 3.84 였다 ($t = -3.877$, $p = .001$). 음주관련 문제 역시 일반계가 20.8 ± 4.66 , 실업계가 22.6 ± 6.65 로 실업계의 문제가 많았으며 ($t = -3.423$, $p = .001$), 세 개의 하위영역에서 두 군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제는 대인 및 가족관계 문제로 일반계 5.8 ± 1.71 , 실업계 6.4 ± 2.28 이었다 ($t = -3.450$, $p = .001$).

6) 음주 동기가 전체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영역인 사고 동기에서 1학년 8.0 ± 3.06 , 2학년 8.8 ± 3.81 , 3학년 9.1 ± 3.58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고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7.810$, $p = .009$).

7) 연구대상자의 음주량은 음주 빈도와 ($r = .622$) 및 폭음 횟수 ($r = .656$)와 상관성이 있었으나 음주 동기나 음주관련 문제들과는 대개 $r = .520$ 에서 $r = .286$ 범위의 비교적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고양 동기와 사고 동기간, 및 대처 동기간에서 각각 $r = .822$ 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음주동기와 음주관련 문제들과는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와 고양 동기간의 상관성이 $r = .603$ 의 중간정도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음주문제들 간에는 사회 기능적 문제와 대인 및 가족관계 문제간이 $r = .714$, 행동문제간이 $r = .668$, 대인 및 가족관계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가 $r = .6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고등학생의 음주는 주로 중학교 때 시작하여 친구들과 마시며 실업계 학생들에서 음주동기와 음주관련 문제가 보다 많았으며, 고양 동기와 대처 및 사고 동기간의 상관성이 높아 학교보건교육에서

이를 반영하여 음주결과보다는 음주 동기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제 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만 다뤘으므로 이들 관련 영향요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2)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업계 학생일수록 음주동기가 높고 이에 따른 음주문제도 강하게 나타남으로 음주예방교육은 빠를수록 좋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3) 음주문제는 대상자의 다양한 음주동기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음주예방 교육이나 상담 시 음주결과보다는 음주동기 절제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 본 연구에서 다루진 않았으나 앞으로 필요한 청소년의 알콜 입수경로나 청소년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청소년 음주단속법이나 관련 정책들에 대한 태도 및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곽정옥, 김영복 (1997). 일부 여자대학생들의 음주 실태와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0(2), 259-269.
- 김광기 (1996).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2(1), 162-192.
- 김석도 (2000). 음주기대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 기대이론과 기대-가치이론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영란 (1999). 대학생의 음주 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 보건협회학술지, 25(2), 24-33.
- 김용석 (1998).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27-44.
-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 행위/음주문제간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5-23.
- 신행우,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1), 77-92.
- 신행우 (1999 a).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 한

- 국심리학회지, 5(1), 93-109.
- 신행우 (1999 b). 성격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8(1), 105-122.
- 안정선, 김희경, 최은숙 (2003). 청소년 음주행위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1), 55-65.
- 연합뉴스. 지난해 성인 1인당 맥주 119병 마셔. [On-line] 2002. 5. 1 [cited 2003, Apl 2] Available from URL:http://carecamp.com/life/alcohol/alcohol_campnews.
- 오윤경 (2000).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윤혜미, 김용석, 장승욱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8, 153-179.
- 임경화 (1999).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조성기, 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제갈정 (2001). 초등 학생과 청소년의 음주실태. *연구보고서 2001-4. 음주문화연구센터*: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음주현황. [online] 2002 [cited 2003 Oct 11]. Available from URL:http://www.youth.go.kr/data_room/행정통계자료/음주현황.htm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약물남용실태. [online] 1999 [cited 2003 July 22]. Available from URL:<http://www.drugfree.or.kr/html/main-2-3.htm>
- 한성현, 한동우 (2001). 청소년의 음주 관련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7(2), 130-143.
- 한소영 (2002).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2001).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202-215.
- Bradizza, C. M., Reifman, A., & Barnes, G. M. (1999). Social and Coping reasons for Drinking: Predicting alcohol misuse in Adolescents. *J of Studies on Alcohol*, 60(4), 491-9.
- Chassin, L., & Delucia, C. (1996). Drinking During Adolescence.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0(3), 175-180.
- James, W. H., D. D. Moore, & M. M. Gregersen. (1996). Early Prevention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dolescents. *J. Drug Education*, 26(2), 131-142.
- Kandel, D. B., Logan, J. A. (1984). Patterns of drug use for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I. Periods of risk for initiation, continued use and discontinuation. *American J. of Public Health*, 74, 660-666.
- Sherry H. S. & Heather, D. (2000).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495-511.
- Sherry H. S. Chambers, L. (1999). Relations between drinking motive and drinking restraint *Addictive Behaviors*, 25(5), 269-274.
- Simons, J., Correia, C. J., Carey, K. B. & Borsari, B. E. (1998). Validating five-factor Marijuana motives measure: Relations with use, problems, and alcohol motives. *J.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65-273.
- Suzuki, K, Minowa, M. & Osaki, Y. (2000). Relationships between Drinking Motive and Drinking Restrain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3), 377-381.
- Rassool, G. H., & Winnington, J. (2003). Adolescents and Alcohol Misuse. *Nursing Standard*, 7(30), 46-55.
- Reed, J. P. Wood, M. D., Kahler, C. W., Maddock, J. E., & Palfai, P. (2003). Examining the Role of Drinking Motives in College Student Alcohol Use and Proble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7(1), 13-23.